



미국 : UPS 노동자 파업 결의

세계적 화물운송업체 UPS의 34만여 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팀스터스(Teamsters) 노조원들은 7월 31일 계약 만료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¹⁾ 노조는 임금인상, 차등 임금제²⁾ 철폐, 배송트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제거,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UPS가 2022년에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고 80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고 보며, 이 금액이 노동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월 1일 파업이 실현될 경우 1959년 철강노동자 파업(약 4개월간 50만 명의 노동자 참여) 이후 최대 규모의 작업 중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UPS 노동자의 마지막 파업은 1997년이었는데, 당

시 15일간의 파업 끝에 노조의 승리로 끝난 바 있다. 미국의 소포 배송 건 중 4분의 1이 UPS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이 물류산업에 미칠 영향은 상당해 보인다.

파업 승인 직전에 노조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배송차량 에어컨 설치 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³⁾ 그동안 온열병 문제로 인해 에어컨 설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UPS는 요구를 거부해 왔는데, 최근 노조와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무더운 노동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초과노동시간 및 업무량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협상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다.

1) CBS News, “UPS Workers Vote to Strike, Setting Stage for Biggest Walkout Since 1959”, 2023.6.16.

2) 차등임금제(two-tier wages)는 동일업무에 대해 특정 그룹이 임금을 적게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3) NBC News, “UPS Workers Vote to Authorize Strike While Cheering Unexpected Progress on Heat Safety”, 2023.6.16.

미국 : 샌더스 위원장,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환경 조사 지시

미국 버몬트 주 상원의원이자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인 버니 샌더스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용자 조직인 아마존 물류창고의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¹⁾ 샌더스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이 하는 일, 태도, 노동자에 대한 존중 부족이 미국 기업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마존 CEO 앤드

류 제시에게 “체계적으로 과소보고된” 부상률, 직원 이직률, 생산성 목표, 연방·주 안전권고 사항 준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샌더스는 아마존의 중상자 비율이 2021년 창고산업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향후 앤드류 제시 또는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를 청문회 증언대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 대변인 스티브 켈리는 샌더스의 서한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검토 초기단계에 있다고 밝혔다.²⁾ 또한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이래 부상 건수가 23% 감소했고 지난 4년간 안전 이니셔

티브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켈리는 “우리를 비판하는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맞게 데이터를 짜깁기하는 방법은 항상 존재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수치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1) The Washington Post, “Bernie Sanders Launches Senate Investigation into Amazon Labor Practices”, 2023.6.20.
- 2) PBS NewsHour, “Sen. Bernie Sanders Launches Probe into Amazon’s Safety Practices, Asks Workers to Share Stories”, 2023.6.20.

미국 :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 배심원 판결¹⁾²⁾

2018년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한 지점에서 20대 흑인 남성 두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매장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당시 근무하던 직원은 이들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 요청을 거부했다. 그 이후 직원이 부른 경찰이 찾아와 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매장 밖으로 인솔했다. 이 사건은 당시 유튜브 등으로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13년 동안 근무한 매니저였던 백인 여성 새넌 필립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되었다. 필립스는 자신이 사건 당시 매장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흑인 남성 둘의 체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은 스타벅스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원고를 희생양으로 이용했으며, 특히 원고의 백인이라는 정체성이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5년이 지난 2023년 6월 12일 뉴저지 주의 캠펀 연방 배심원단은 6일에 거친 재판에서 스타벅스가 백인 매니저 새넌 필립스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는 흑인 지부 매니저였던 이의 인종이 해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증언이 크게 작용했다. 필립스는 6일에 걸친 재판 끝에 2,56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 판결은 백인이 인종차별을 주장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종차별로부터의 보호는 당사자가 어떤 인종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드렉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차별금지법 전문가 웬디 그린 교수는 백인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이 흔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들의 승소율은 비백인이 제기한 소송보다 더 높다는 연구를 제시하며, 차별

금지법이 때때로 백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1) ABC News “Starbucks Discrimination Lawsuit Awarded White Employee \$25 Million: Legal Experts Weigh In”, 2023.6.17.
- 2) CBS News, “Starbucks to Pay \$25 Million To Former Manager Shannon Philips Allegedly Fired Because of Race”, 2023.6.14.

미국 : 접근성이 높아진 우버 드라이버 노조 가입¹⁾²⁾

2023년 6월 13일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우버, 리프트 드라이버와 같은 각 경제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 가정 건강도우미, 스트리퍼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최근 아틀란타 오페라의 스타일리스트 노조 조직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에서 볼 수 있다. 아틀란타 오페라 측은 노조를 조직하려는 해어 및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들이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조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LRB는 이들 역시 노동자이며, 따라서 노조 역시 조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노동법은 특정 노동형태의 노동자들에게만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독립계약 노동자에게는 단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는 2019년 트럼프 정부 당시 NLRB의 판결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엔 NLRB 위원 구성에서 공화당이 우세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 위원이 다수가 되면서 2014년 당시 오바마 정부하에서의 시스템을 다시 채택했다. 오바마 정부는 NLRB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데 회사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혹은 노동자가 단일 회사에 얼마나 생계비를 의존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노동부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 독립계약자가 아닌 노동자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며, 이것이 성사되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임의로 분류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선 NLRB의 판결과는 독립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 1) The Washington Post, “Gig Workers Could Find It Easier To Unionize Under New Ruling”, 2023.6.13.
- 2) The Reuters, “US Labor Board Ruling Could Spur Unionizing By Gig Workers, Others”, 2023.6.14.



독일 : 연방노동법원, 파견노동자의 저임금 수령에 동일임금원칙 예외 적용

독일 내 80만 명이 넘는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보다 평균 월 600유로 적은 임금을 수령한다. 최근 연방노동법원은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 노동자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의류회사 H&M의 파견노동자로, 직접고용 노동자는 시간당 약 13유로를 받는 데 반해 약 3분의 1이 적은 시간당 약 9유로의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차액 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¹⁾

연방노동법원은 이 소송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파견회사의 임단협이 체결된 경우에는 파견노동자의 저임금 수령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EU법상 파견노동자지침의 위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2022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파견노동자와 직접고용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동일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파견노

동자가 저임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더 많은 휴가일 수 보장 등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원고는 서비스노동조합(ver.di)과 독일파견회사연합(Interessenverband der Deutschen Zeitarbeitsunternehmen)이 체결한 임단협에 저임금 보전조항이 없음을 들어 부당함을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다른 EU 회원국과 달리 독일법에서는 파견노동자가 미파견기간에도 임금을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파견기간 중의 저임금이 보전된다고 보았다.²⁾

지난 몇 년간 독일에서 파견노동부문의 임단협 체결 비율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 높아 98%에 이른다. 사측은 이번 판결을 반기며 임단협 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반면 노동조합은 임단협의 당위성을 찾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여 앞으로의 임단협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³⁾

1) Spiegel, "Leiharbeitende dürfen schlechter bezahlt werden als Stammbeflegschaft", 2023.5.31.
2) ZDF, "Leiharbeiter dürfen weniger Lohn bekommen", 2023.5.31. 원고 측 루돌프 부쉬만 변호사는 직접고용 노동자 또한 업무가 없을 때에도 임금을 수령한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Tagesschau, "Nicht immer gleicher Lohn für gleiche Arbeit", 2023.5.31.

독일 : 기민·기사연합, 63세 조기연금제도 폐지 제안

독일 연금보험은 현재 67세를 연금개시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45년 이상의 장기납입 가입자에게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수

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민·기사연합은 독일이 당면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연금제도를 즉시 폐

지하는 안을 제시해 논쟁에 불을 지폈다.¹⁾ 옌스 슈판 부원내대표는 조기은퇴가 사회복지 시스템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현재 독일 노동시장에서 기술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호소했다.²⁾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연령을 늘리지 않는다면 연금시스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³⁾

조기연금제도 폐지안은 다른 정당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사민당의 후베르투스 하일 연방노동부 장관은 기민당의 인식이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노

동활동을 일찍 시작해 오랫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이들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⁴⁾ 녹색당과 좌파당 또한 이 안이 연금 축소를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었다고 반발했다. 육체노동자 대부분이 신체적 한계로 조기퇴직하므로 연금 감액 없이 조기은퇴가 가능한 현재의 조기연금제도를 폐지할 경우, 건설현장이나 요양 부문, 교대근무업무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⁵⁾ 한편 자유민주당은 스스로 연금개시연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1) Tagesschau, "Spahn will 'Rente mit 63' sofort abschaffen", 2023.5.28.

2) Bild, "CDU fordert sofortiges Ende der 'Rente mit 63'", 2023.5.28.

3) Süddeutsche Zeitung, "Diskussion über Rente mit 63", 2023.5.29.

4) Tagesschau, "‘Ideologisch’, ‘ungenießbar’, ‘soziale Kälte’", 2023.5.31. 연방노동부 장관은 고령노동자의 노동참여가 지난 20년간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를 건강관리와 재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2023년부터 조기연금수령자의 추가 소득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것이 노동시장의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5) 야닌 비슬러 좌파당 대표에 의하면 연금개시연령을 늦추는 것은 여러 직업부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인력부족 현상은 노동조건 개선, 재교육 강화, 임단협 확대 및 기술교육자리 확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6) Tagesspiegel, "CDU-Politiker Spahn fordert sofortiges Ende der 'Rente mit 63'-Linke empört", 2023.5.28.

영국 :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으로 100명 이상 체포

2023년 6월 15일 영국 내무부는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을 영국 전역에서 진행했다. 15일 하루 동안 300명 이상의 출입국 관리관들을 파견하였고 150곳 이상의 상업시설들을 기습 단속했다.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작전으로 하루에 105명의 불법체

류 노동자를 체포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음식점, 세차장, 네일숍, 이발소, 편의점 등 상업시설에서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불법근무, 허위문서 소지 등의 이유로 체포되었다. 리시 수백 총리는 단속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15일 이른 아침



북런던의 브렌트 지역을 방문했다. 수백 총리는 불법이주 및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영국 내무부 수엘라 브레이버만 장관은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은 노동자를 정직한 방법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다. 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내무부는 불법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단속은 영국 정부가 불법이주 및 불법체류 노동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¹⁾ 버밍엄에서는 단속관들이 큐슬렛(Queslett) 지역에 위치한 창고를 급습하여 불법체류 노동자 5명을 체포하였고 내무부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해당 회사에 최대 1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²⁾

이날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들 중 40명 이상은 영국에서 추방될 때까지 구금될 예정이며 나머지 용의자들은 이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20개 이상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으며 합법적인 취업비자 없이 여러 상업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1분기에 이민단속국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1,303건을 기습 단속했고, 단속 및 불법체류 노동자 체포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2월 리시 수백 총리가 불법이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내무부는 경찰과 국립범죄청을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 Home Office, “Over 100 Arrested in Record Breaking Illegal Working Crackdown”, 2023.6.16

2) BBC, “Birmingham Raids in Crackdown on Illegal Workers”, 2023.6.16.

영국 : 프라이드 퍼레이드와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보호 의견 증가

매년 6월이 되면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전 세계에서 개최된다. 영국 런던의 경우 매년 7월 1일에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린다. 하지만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키슈어 포크너(Kishwer Falkner) 위원장을 상대로 12명의 직원이 따돌림, 괴롭힘 등을 포함한 40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중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포크너 위원장은 5월부터 내부조사

를 받고 있었다.¹⁾ 따라서 7월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앞두고 영국 전역에서는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 유나이티드 항공 등 많은 기업들이 7월 1일의 런던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지원하고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 및 기업 내 다양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²⁾ 한편 영국 기업들의 60%가 경영진에게 다양성 교육을 제공하는데, 해당 교육을 경영진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기업일수록 노동자들의 팀워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참여도가 높아진다.³⁾ 따라

서 영국 내에서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앞두고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⁴⁾⁵⁾

- 1) The Guardian, "EHRC Discord Deepens After Inquiry into Complaints Against Chair Paused", 2023.6.6.
- 2) Motor Trader, "Volkswagen Group UK Sponsors Milton Keynes Pride Festival for Third Year", 2023.6.16.
- 3) Christie Smith, Deloitte University Leadership Center for Inclusion, Stephanie Turner, "The Radical Transformation of Diversity and Inclusion: The Millennial Influence", 2023.06.27.
- 4) PinkNews, "LGBTQ+ Network Leaders on Why Their Work Is So Vital: 'Creating A Sense of Belonging Matters'", 2023.6.13.
- 5) Safety & Health Practitioner, "Pride Month: 5 Ways to Create An LGBTQ+ Inclusive Workplace", 2023.6.15.

프랑스 : 공무원 임금지수(point d'indice) 상향조정

공공서비스부 스타니슬리스 게리니 장관은 2023년 6월 12일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¹⁾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임금지수는 기존 4.85유로에서 1.5% 인상된 4.92유로가 적용된다.²⁾ 이번 인상안은 지난 2022년 7월 3.5%라는 기록적인 상승 이후 재차 이어진 것이다.

프랑스 공공부문 종사자의 임금은 임금지수와 인상지수(indice majoré)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진다. 인상지수는 근속연수와 지위, 등급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세전 월 급여는 임금지수에 인상지수를 곱한 값이 된다.³⁾ 예를 들어 한 공무원의 인상지수가 500포인트인 경우 인상된 임금지

수에 따라 올 7월 세전 월 급여는 약 2,460(500×4.92)유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뿐만 아니라 인상지수도 임금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임금지수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 1월부터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상지수도 5포인트씩 올린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약 25유로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 밝혔다.

임금인상안의 목적은 구매력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세전 소득이 월 3,250유로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2023년 말까지 세전 최대 800유로를 지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인구의 비율은 정부기관 종사자의 50%, 공공 의료시설 종사자의



70%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최대 9포

인트의 인상지수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1) Ministère de la transform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2023), “Vers une revalorisation des rémunérations dans la fonction publique”, <https://www.transformation.gouv.fr/> (2021.6.18).
- 2) TF1, “Salaire des fonctionnaires : le point d’indice en hausse de 1,5% au 1er juillet”, 2023.6.12.
- 3) Ministère de la transform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2023), “Connaître le point d’indice”, <https://www.fonction-publique.gouv.fr/> (2021.6.18).

프랑스 : 정부, 완전고용 목표로 새로운 고용지원 기구 준비

프랑스 정부는 2023년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완전고용법(loi pour le plein-emploi)”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 1월부터 기존 프랑스 고용센터(Pôle Emploi)를 대체하는 France Travail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¹⁾ 완전고용법은 현 7.1%인 실업률을 오는 2027년까지 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가정 구성 상태를 고려해 최저생활비 미만의 경제력을 갖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능동연대수당

(RSA)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France Travail에 등록되어야 한다. 현재 수당 수령자 중 프랑스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우는 약 40% 정도이다. 고용지원 기구로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보다 적절한 고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당 15~20시간 동안 사회진출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 인턴이나 직무능력 교육, 자격증 준비 등을 하는 경우에만 능동연대수당을 수령하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혜택에 따른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더 빠른 사회진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1) Le Monde, “France Travail : le gouvernement présente son projet de réforme de Pôle emploi en conseil des ministres”, 2023.6.17.

프랑스 : 2022년 그랑제콜 졸업 여성, 남성보다 적은 임금 받아¹⁾

2023년 6월 14일 프랑스 그랑제콜 협회의 발표

에 따르면, 그랑제콜 학위를 소유한 여성이 여전

히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은행이나 보험업계 부문에서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¹⁾ 한편 2022년 졸업생은 채용에 비교적 호전된 경제·사회적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취업률은 90.5%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높다. 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해당 설문조사는 그랑제콜 졸업생의 채용 현황을 조사하며, 졸업 6개월 이후를 중점으로 분석한다. 올해는 194개 기관의 2021년과 2022년 졸업생이 참여했고, 고용률과 임금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3년 또한 남녀 간 임금격차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목격됐다. 예를 들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의 임금은 상여금을 제외하면 남성의 임금보다 평균 5.5% 낮으며,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취업한 남녀 간 임금격차는 7.3%에 달

했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률이 3.2% 낮고,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기 더 어렵거나 임원직을 맡을 확률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23년 정규직 채용 비율은 많이 호전됐고, 입사자 중 85.5%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공과대학 졸업생 10명 중 8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반면, 다른 단과대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채용되었다. 임금상승세를 살펴보면, 2022년 졸업생의 평균 연봉은 3만 8,184 유로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4.5%로 크게 증가했다. 끝으로 응답자의 95.8%가 첫 직장을 구하는 데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68.6%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채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1) Le Monde, “Les jeunes femmes diplômées des grandes écoles toujours moins payées que les hommes”, 2023.6.15.
- 2) 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 “L’Insertion des diplômés des grandes écoles, résultats de l’enquête 2023”, 2023.6.14.

프랑스 : 주 4일 근무제, 소규모 기업에서 진전 보여¹⁾²⁾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널리 확산된 재택근무에 이어, 노동시간이 아닌 노동일수를 줄이자는 일환으로 주 4일 근무제가 유럽 전역에 도입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벨기에에서는 제도의 시범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목격됐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이 주 4일 기준 35시간을 근무할 수 있

도록 허용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약 1만 명의 노동자가 주 4일 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기업을 비롯한 공기업 또한 이에 포함됐다. 정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대적인 사회적 반발이 목격되는 가운데, 가브리엘 아탈 공공회



계부 장관은 “오늘날 많은 프랑스 국민이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믿는다.” 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에너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소규모 기업 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했고, 경영진은 35시간, 직원은 32시간 근무했다. 그 결과, 일일 휴식 시간은 40분에서 34분으로 줄었고, 점심시간은 이전보다 30분 가량 감소한 1시간 10분 정도로 오히려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반면 120명의 직원 중 절반은 70% 이상 감소했고, 사직 또한 절반 이상 줄었으며, 평균 회의시간이 63분에서 54분으로 단축됐다. 노동자의 출퇴근 이동 횟수가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주 4일 근

무제를 시행하면서 초래될 경제적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경제학자인 에릭 에이어는 기업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제도 운용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학자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방식을 재편함으로써 기계 활용을 확대하게 되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점은 서비스 부문에서는 더욱 불확실한데, 기존의 주 5일 근무에서 노동일수의 하루가 줄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비나 기계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주 4일 근무는 오히려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번아웃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1) Le Monde, “La semaine de quatre jours fait son chemin en France, entre bien-être des salariés et attractivité des entreprises”, 2023.5.29.
- 2) La Croix, “Travail : la semaine de quatre jours, avancée sociale ou risque économique?”, 2023.6.13.

스페인 : 신규 일자리의 44%에 외국인 여성 노동자 취업

2023년 4월 27일 스페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EPA)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약 3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최대 수치이다. 이 가운데 44%인 약 16만 개의 일자리에 외국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12%인 4만 4천 개의 일자리에 이중국적 여성 노동자가 취업했다. 이에 반해 신규 일자리 비율에서 외국 국적 남성 노동자는 22%를 차지했고, 스페인 국적 남성 노동자는 14%, 스페인 국적 여성 노동자는

8%를 차지했다.¹⁾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여성 인구는 28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한다. 이중 128만 명이 노동에 종사하며, 전년대비 14.3% 증가했다. 이는 이중국적 여성 노동자(10.26%), 외국 국적 남성 노동자(6.18%), 스페인 국적 남성 노동자(0.6%), 스페인 국적 여성 노동자(0.39%)의 증가율보다 높다. 그러나 외국인의 고용이 증가함에도 이들의 평균 연봉은 1만 1,800유로로 최저

임금보다 적으며, 스페인 국적 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절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첫째, 여성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경향에서 단신으로 이주하는 경향으로 바뀐 점, 둘째,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반화된 노동시장 구조로 변화한 점, 셋째,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위기로 맞벌이가 증가한 점, 넷째, 스페인으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스페인 정부가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한 점을 들고 있다.²⁾

최근 스페인 금융기관 BBVA 산하의 경제연구소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편입에 대해 소비 가구수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내수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공급망의 정상화와 함께, 스페인에서는 관련 부문에 외국인 노동력이 편입됨으로써 공급망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도 본다.³⁾

- 1) 스페인 통계청 조사결과 및 통계청 언론보도는 각각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ine.es/jaxiT3/Tabla.htm?t=6362&L=0>; <https://www.ine.es/daco/daco42/daco4211/epa0123.pdf>
- 2) El País, “Son el 6% de la población, pero ocupan el 44% de los nuevos empleos: las extranjeras catapultan el mercado laboral”, (2023.5.15).
- 3) Infobae, “La inmigración compensa el envejecimiento de la población española: el 66,2% de los nuevos ocupados son extranjeros”, (2023.6.14).

스페인 : 노조 지도자들, 각 정당에 노동개혁 관련 입장 표명 요청

2023년 6월 7일 CCOO의 우나이 소르도 사무총장과 UGT의 페페 알바레스 사무총장이 스페인 정당들에게 노동개혁, 연금제도 및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¹⁾ 또한 노총 지도부는 극우 정당 복스(VOX)와 관련하여 복스가 연립내각 형태로 차기 정부에 들어오면 사회적 대화라는 헌법적 틀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이미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²⁾

2023년 5월 28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우

파 인민당 대표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주는 7월 23일 실시될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노동개혁에 손을 댈 것”이라고 공언한 적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대 노총 지도자는 주요 사회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두 사무총장은 입법부를 점검하기 위한 양대노총 간 회의를 개최한 후, 노동문제에 대한 모든 정치세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스페인의 2천만 노동자가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인민당 대표의 입장에 대해 노동개혁의 어떠한 부분을 유지하고 변경할지 확실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집



권당인 사회노동당(PSOE)과 좌파 정당을 향해서도 노동 관련 공약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이후 의회에서 합의된 재택근무와 실업

급여(ERTE) 관련 규정 등의 노동개혁안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두 노총 지도자는 차기 정부가 해고 및 자영업과 관련한 21세기의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 1) El País, “Los líderes sindicales exigen a los partidos que digan si mantendrán las reformas laboral y de pensiones y el salario mínimo”, (2023.6.7).
- 2) RTVE, “UGT y CC.OO. piden a los partidos que aclaren qué van a hacer con la reforma laboral y las pensiones”, (2023.6.7).

일본 : 단시간 노동자에도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주당 노동시간이 2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¹⁾ 현행 제도에서는 주 20시간 미만 노동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저출생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편의 영향으로 기업은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원 배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 제도개편 원안에는 “근로자 모두 보험의 실현”도 명시할 예정이며,³⁾

이는 한국에서 논의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처럼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 예정된 연금제도 개정에 앞서 일본 정부는 단시간 노동자도 퇴직연금의 일종인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생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현행 직원 수 101명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개인 사업자 중 후생연금 가입대상 업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⁴⁾

- 1) 毎日新聞, 「雇用保険「パートに適用拡大へ」コロナ禍が示した矛盾」, 2023.6.12.
- 2) 日本経済新聞社, 「バイト・パートに雇用保険、28年度までに適用開始」, 2023.5.25.
- 3) 朝日新聞, 「雇用保険、週20時間未満も適用拡大「28年度めど」骨太方針に」, 2023.6.6.
- 4) 日本経済新聞社, 「厚生年金 パート適用拡大 企業の規模要件撤廃へ 政府が議論 加入130万人増の試算」, 2023.5.31.

일본 :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률 공표 의무 확대

일본 정부는 “자녀 미래전략 방침” 초안에 여성에게 부담이 쏠리는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¹⁾ 이 방안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노동자가 자녀 양육 기간 동안 기업이 다양한 근무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남녀의 “맞벌이·맞돌봄”으로 실현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공개 의무 대상 기업을 현행 종업원 1천 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자녀가 2세 미만인 노동자가 단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을 보상하는 “육아시간 단축 취업 급여(가칭)”를 마련하여 2025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는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과 3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노동자가 다양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²⁾ 또한 “산후 아빠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산후 육아휴직 시의 급여를 기존 급여의 실수령액 기준 80%에서 100%로 높이는 조치를 2025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간병에 이용할 수 있는 “간호휴가”를 자녀의 입학식 등 행사 참여나 감염병으로 인한 휴교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³⁾

1) 日本經濟新聞社, 「児童手当、高所得者も満額 現金給付の効果に限界 男性の育児時間欠かせず」, 2023.6.14.

2) 内閣官房, 「「こども未来戦略方針」～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のための「こども未来戦略」の策定に向けて～」, 2023.6.13.

3) 時事通信, 「政府、男性の育児参加へ具体案 育児率の公表義務拡大—少子化対策」, 2023.6.2.